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김 준 영
제 목	Realize [뜻 : 깨닫다, 알아차리다, (목표 등을) 실현하다.]		

Intro.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웬지 일이 쉽게 풀린다 싶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말문이 턱막히는 걸까.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시련에 잠시 그로기상태에 빠졌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를 남에게 가르치며 재능기부를 해야만 한다니, 내가 이 질문에 쉬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일까 단순히 나의 세대를 일반화해버린 밀레니얼세대라는 단어 때문일까?

아무리 되돌아봐도 가난한 유년시절을 겪고 잘 살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고 경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고민을 해야 한다니 나지막이 어제 서점에서 보았던 구절을 되뇌어봅니다.

구절양장(九折羊腸) : 아홉 번 굽은 양의 창자,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여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어찌되었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며 성공이라는 단어에 획을 추가하기 위해 오늘도 저의 가능성 상자를 두드리봅니다.

제 1장 Blue Collar

“너 같은 아들을 꼭 낳아봐.”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 와서 무서울 정도로 공부는 상위권이었지만 파란만장한 청소년기를 보냈다보니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려면 학력이 필요하다는 말에 내심 오기부터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기를 부러보아도 얻는 것은 없었기에 결국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은 성적으로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고 나름 자부심을 가졌지만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말이 항상 남들에게 제가 무언가 보여주기도 전에 저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자괴감으로 변해가고 저는 퇴장하기 직전의 악당처럼 피해의식, 악다구니만 남아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린 시절의 가난한 삶이 싫었고 다시 무시당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오래 일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의 숙련도가 늘어나니 제가 책임지는 일이 생기고 외부 일보다는 내부 일을 배울 기회도 점차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2가지 문제가 생기고는 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아닌 상황이 생기고 나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학력을 기반으로 관리직이라는 직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의 반, 타의 반 상사로 모셔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더 오래 일했고 실무자들과 보다 더 끈끈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규정해둔 학력의 세계는 월래 이런 것이라며 저를 꼬집었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맞벌이하느라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길러주신 외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로 떠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들 쉴 때 쉬고, 정장 입은 모습으로 다니는 번듯한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유언과 함께.

제 2장 White Collar

그 때 당시, 정부 정책 상 ‘선 취업 후 진학’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자주 회자 될 때쯤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해보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 동안의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고 다시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나라 기업 중 고졸을 뽑아주는 곳으로 도전하자였습니다.

운이 참 좋게도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덜컥 대기업에 붙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공 원동력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서점을 운영하던 이모 가게에 자주 맡기고는 하셨는데 하루 종일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책을 반복해서 섭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책은 자주 보고 옆에서 함께 보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빨리 읽고 쉽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어휘력, 암기력이 좋아진데다 기술을 배우며 장사를 해본 경력으로 인해 임기응변에 능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새 회사에서 다행히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 점차 자리를 잡아갔지만 역시나 같은 문제에 부딪치기도 하고 회사에 목숨을 바치듯이 다니다보니 조금씩 응어리지는 스트레스는 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다보니 언젠가는 취기에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손주의 삶이 이런 모습이나며 하늘에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게 대학교였는데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교를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야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전반적인 커리큘럼, 운영방식 등이 직장을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1등'을 로건을 내걸고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진학이 확정되어지고 나서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을 바꾼 그 날의 시작을 잊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신·편입학생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온라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학과 선배와 조 편성을 하여 현장중심으로 지원하는 멘토링(Mento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명분으로 우연히 학과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식사자리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식사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함께하며 느낀 것은 “직장을 다니며 학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일 수가 있구나.”라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할 만큼 모두가 본인 학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나이, 직업군이 모이다보니 이젠 뭐 신세계라 할 만큼 알 수 없는 주제가 대화 안건으로 지정이 되는 즉시 뉴스에서만 보던 'Google'사의 회의문화가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정말 다양하고 기가 막힌 속도로 특정 문제의 솔루션이 조금씩 완성되어지며 해결되었고 그 광경은 저를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두근거림이 크게 들렸는지 멋있는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한 학생회장(학과대표)이 저를 쳐다보며 제안을 했습니다.

“신입생이죠? 1년 동안 1학년 대표로 활동해보지 않을래요?”평소의 저라면 분명 심사숙고 했을 것이 분명한데 상기된 저의 얼굴이 이미 “잘 부탁드립니다.”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의 붉은 태동이 저를 2년 연속 학과 대표로 이끌게 됩니다.

제 3장 Golden Collar

2019년, 현재 저는 학과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며 되돌아보니 다양한 직업군, 나이대의 사람들을 이끌며 2배, 4배 성장해왔다는 걸 새삼 체감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블루칼라를 시작으로 화이트를 거쳐 골든칼라로 입문한 저는 어느새 회사가 원하는 조직과 잘 어울리며 새로움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양사이버대학교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올바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3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함께 가는 길은 보다 가볍다.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두문불출하며 학습에 전념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학습하길 원한다면 안락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 중 저는 후자의 덕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 이는 단순히 'Study'라는 영어 단어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시설·제도)가 명확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주 뛰어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인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보는 시야를 넓히면서 결과를 도출하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있는 것을 분명 느끼게 될 것 입니다. 입학 당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한 멤버들이 모여 시험공부를 하고 의견을 나누며 각자 분야에 대해서도 간접체험을 지속하다보니 과제, 서술형 시험에 보다 폭 넓은 답변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다보니 한양사이버대학교 홍보대사(학과 홍보영상 촬영 등)에 임명 되는 등 명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2) 군계일학(群鷄一鶴) : 닭 무리에 끼어 있는 한 마리의 학, 눈에 띄는 한 사람. 자연스럽게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다보니 회사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차 상위관리자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생각을 바꾸어보니 보고서도 회의 자료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이, 열심히 해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해보고 솔직하게 하부 조직과 공유하며 일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갔습니다. 그러자 느껴보지 못한 차원의 상위관리자들의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이는 기존에 가진 능력들과 학습 성과들이 모여 불이 붙어버린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폭발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제가 학습에 대해, 사회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분명 더 크고 아름다운 폭발을 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I know I'm not alone.(난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아.)

알렌 워커(Alan Olav Walker)라는 DJ의 Alone이라는 노래 중에 있는 가사입니다. 항상 저의 아침을 깨워주는 노래이기도 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얻은 가장 큰 배움은'좋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공과목 교수님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있는 오프라인 강의 전, 모두발언으로 하셨던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심금을 울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해보니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하하.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은 좋은 사람일 겁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고 반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여러분은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해서 자기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을 좋은 환경에서 만나다보니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듯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 기업의 대표이사, 전문직 종사자, 진정한 어른들까지 쉽게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다보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들보다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지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더욱 겸손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경험보다 확실한 교육은 없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정말 최고의 장점이지요?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본인을 믿고 해가 뜨는 이곳으로 오시길 권유 드립니다.

제 4장 Realize

이 글을 작성하며 3년(현재 3학년 재학 중)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니 제 주변엔 저의 이야기라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들어줄 소중한 인연이 많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교육은 선순환(사랑·근면·정직·겸손·봉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저는 제가 최적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5가지 키워드를 모두 경험했으니 말이지요. 과거의 제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내로라하는 기업의 대표, 실무자분들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현재의 과정들이 즐겁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멤버들은 어느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법인의 대표가 되는 등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공이 전부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튼튼한 울타리를 제공해준 점, 더 나은 가치를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 시스템 등은 분명 어떻게든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으로는 2016년, 패기 넘치는 20대 청년에게 학년대표(학생자치제도)를 권유했던 연상의 '커리어 우먼' 학생회장과 19년 3월 30일 날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현재 G2(미국, 중국) 무역전쟁, 내수침체, 수출저하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매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나아가 국가에 이바지한다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Go ! Go !

끝으로 어렸을 적부터 'Realize'라는 제목으로 수기 글을 작성하고 싶었던 제 꿈을 이루게 해준 주최(조선일보·한양사이버대학교)측에게 심심(甚深)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